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오전 (3부) 10시
오전 (4부) 2시
금요일전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주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3년 5월 19일 (제690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주일에배 워킹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칼럼

청출어람(靑出於藍)

우리 아들이 나보다 크고 덩치도 좋다. 물론 신체적인 것만 우월한 것은 아니다. 지식으로나 뭐나 다방면에서 나보다 낫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외국어도 능통하다. 그런 아들을 보고 있자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것이 부모 마음 아닐까. 나는 스승의 마음도 부모 마음과 일반이라고 생각한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이란 말이 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낫고, 자녀가 부모보다 낫다는 뜻이다. 스승은 바로 청출어람, 곧 내가 애써서 기른 제자가 나를 능가하는 지식과 능력을 가질 때,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 나도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제자 중에 교회도 부흥시키고, 설교도 잘 하고, 능력도 행하는 자를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이런 묘목 같아서 '저게 언제 자라려나' 했는데, 어느 날 보니 크고 무성한 나무가 되어 제법 큰 열매도 맺고 이제는 오히려 내가 그 그늘에서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기쁨이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

우리 주님도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셨나 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이라." (요14:12)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말이다.

엘리아를 따라 다니던 엘리아, 모세를 따르던 여호수아,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이 다 청출어람의 제자들이다.

'감히 주님보다 큰 일을 하다니요?', '어떻게 스승보다 크게 돼요?' 라고 말하지 말라. 그건 스승의 뜻을 모르는 것이요, 청출어람에 이르지 못한 것을 합리화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가르치신 것처럼, 스승은 제자를 위해 자신을 다 태우는 촛불과 같다. 그 마음과 뜻을 헤아려 청출어람을 이루는 제자가 되자.

사도행전은 지금도 쓰여져야 한다

지난해 봄, 우리는 참으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의외의 메일을 받았다. 슬로바키아(Slovakia)라는 먼 나라에서 온 메일이었다.

'슬로바키아' 하면 옛 구소련 시절, 공산국 소련의 위성국가로 체코슬로바키아(Czechoslovakia)의 수도 프라하(Praha)에 있었던 자유화 운동, 곧 '프라하의 봄'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나라일 뿐이었다. 체코슬로바키아에 새로 등장한 두프체크(Dubcek) 공산당 제1서기에 의해 주도되었던 개혁운동, 곧 프라하의 봄은 1968년 동유럽 자유화의 도미노

를 초월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왔다. 1990년대에 전 세계에 무료로 보내온 비디오테이프의 결실이 곧 2000년 이후 우리 교단의 세계선교 역사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안 목사의 메일은 유튜브(YouTube)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있는 목사의 해외집회 영상을 보고 성령에 감동되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역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의 속도는 놀라웠다. 비디오테이프는 10년이 걸렸다면, 유튜브 동영상은 단지 1년도 채 안되어 효과가 나타난 셈이었다. 안 목사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목사님을

했다.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유럽권 선교 담당인 우크라이나(Ukraine)의 슬라바 목사와 연락하여 일을 추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채 1년이 안되어 안 목사는 슬라바 목사를 통해 체코의 브르노(Brno)와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Bratislava)에서 집회를 열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다. 인터넷을 통한 해외선교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우리의 유럽 선교는 2000년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러시아(Russia), 라트비아(Latvia), 에스토니아(Estonia), 독일



체코 브르노 및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집회를 위해 합심기도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상을 우려한 소련의 지휘 아래 바르샤바 조약 연합군에게 무참히 짓밟혔다. 그 후 체코슬로바키아는 구소련의 마지막 서기장 고르바초프(Gorbachev)가 등장하여 개방개혁을 외치게 되는 1980년대 말까지 침묵해야 했다. 1991년 구소련이 붕괴하며 소비에트(Soviet) 연방이 해체되고, 위성국가들도 자유화물결에 공산정권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때, 체코슬로바키아는 루마니아(Romania)의 유혈혁명과는 달리 무혈혁명으로 민주정부가 들어섰다. 그리고 1993년 체코(Czech)와 슬로바키아로 분리 독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 슬로바키아(Slovakia)의 안(Jan) 목사가 보내온 메일의 내용이 놀라웠다. 우리 교단의 13년 해외선교역사를 보면 대부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내왔던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목사님을 알게 된 현지 목회자들이 통역관들을 통하여 목사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답장도 하기 전에 그는 요셉(Jozef) 목사와 함께 오겠다고 비행스케줄을 보내왔다.

인천공항 입국장을 들어서는 안 목사와 요셉 목사는 전형적인 유럽 시골 목회자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숙소에서 여장을 풀자마자 당일로 금요일집회에 참석했다. 그런데 그때침 그들은 예배 중에 목사님이 귀신을 쫓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과 처음 대면하게 된 그들의 첫마디는 이러했다.

"이젠 돌아가도 됩니다."

유튜브에 올라있는 영상이 사실임을 확인했으니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들에게 속소를 제공하고 관광, 식사 등 융성한 대접으로 환대해주었다. 그들은 미처 생각지 못한 대접에 몸 둘 바를 몰라 했고, 고국으로 돌아가 집회를 준비하겠다고 약속

(Germany), 그리고 이번에 체코 및 슬로바키아로 이어진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더 많은 동구 유럽의 나라들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란다.

오늘의 IT 정보화 문명은 분명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잘못 사용하면 영적 신양생활에 큰 해독이 될 수도 있지만, 이를 선용하기만 한다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선교사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얼마든지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될 것이다.

사도행전에는 마침표가 없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쓰여져야 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DVD와 CD, 책자뿐 아니라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하여 더욱 더 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초석 목사 춘계산상집회

▶ 일시: 2013년 5월 27일(월) ~ 30일(목) ▶ 장소: 장성예루살렘기도원 ▶ 많은 기도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호텔예약: 5월 21일(화) 오전 10시 1600-0688, 02)533-9191(해외)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행20:24)

'기필코 정신'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

저에게는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인 성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목표를 정하거나 어떤 것을 결단하면 절대 뒤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목표점에 도달할 때까지, 그것을 이를 때까지 귀는 막고 오직 목표를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성격 말입니다. 이를 하여 '기필코 정신'입니다. 이 기필코 정신이 있었기에 술한 핏박과 모함 속에서 오늘의 예루살렘교단을 세웠고,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생각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 '기필코 정신'을 단적으로 표현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정신으로 그는 험한 파도를 넘어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이 '기필코 정신'이 있습니다. '기필코'의 사전적 의미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뜻한 바를 이루고야 말겠다,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생각이 그들을 성공자로, 승리자로 이끈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나중에 베드로가 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고기가 잡힐 때까지 밤새 그물질을 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고기를 잡고야 말겠다는 근성을 가진 사람이지요. 예수님은 그 정신을 높이샤 그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마1:17)'가 되게 하셨습니다.

압박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

에 가득하게 하였고(왕하3:20),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기름을 만들어 주어 빛을 갖게 하였으며(왕하4:7), 수넵지방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다시 살렸습니다(왕하4:35). 또한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었고(왕하5:10),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도 하였습니다(왕하6:6).

여기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겠노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

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히 10:38-39).

이런 믿음 전 무



의 정신, 일사각오의 정신이 영·혼·육의 필수 성공요소입니다.

여인 이야기도 할까요? 그녀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마7:27)고 하셨습니다. 개 취급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기필코 딸을 고쳐달라고 말겠다는 생각뿐이어서, "주여 울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마7:28)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소경 바디매오도 반드시 눈을 뜨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지 예수를 꼭꼭 붙들러 소원을 아꼈고(마10:46-52),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친구에게 떡을 구하는 자나 누가복음 18장에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의 결판도 기필코 정신이 이른 채거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지분을 풀어서라도

예수님께 다가가 고침을 받은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명의 친구, 그리고 반드시 전쟁에 이겨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던 입다, 꼭 아들을 얻고야 말겠다고 기도한 한나 모두 기필코 정신이 있었기에 목적인 바를 이른 자들입니다.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간 에스터 역시 기필코 정신의 대명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눅18:7-8).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를 위

해 다 준비하고 있다. 너희를 위해 응답할 준비가 다 끝났다. 그런데 너희가 끝까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단다. 기필코 정신이 없어서 못 얻는단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가 산에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러하십니다. 성도들이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는 소망의 열도가 낮아서라고요,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는 마음, 부자가 되고야 말겠다는 소망, 성공하고야 말리라는 의지가 없어서 응답을 못 받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7:7-8). 한 마디로 '기필코 정신'이 있는 자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시면 다행이고, 안 주셔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

에게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찾으면 다행이고, 못 찾아도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못 찾습니다. '열리면 다행이고, 안 열리면 다른 문을 찾자' 하는 자요? 그 문 절대 안 열립니다. '얻고야 말겠다, 찾고야 말겠다, 열고야 말겠다' 하는 기필코 정신이 있어야 함

가다가 곧 증거하면 아니간만 못하다

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약1:6-8).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움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움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계3:15)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결단했으면 끝까지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때까지 그 정신을 가지고 가야 뭔가 이를 수 있습니다. '기필코 응답받고야 말겠다', '기필코 병에서 고침을 받고야 말겠다', '기필코 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필코'라는 말 속에는 '고난과 역경을 뚫고'라는 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기필코'는 각오, 인내, 노력이 따릅니다. '기필코 박사학위를 따겠다'는 사람이 힘들지만 공부하는 것이고, '기필코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맹훈련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기필코 온 가족을 구원하고야 말겠다'고 마음 먹고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될 것입니다. 저처럼요. '기필코 앞에서 낚고야 말겠다'고 기도하면 낚게 됩니다. 응답은 소망의 열도에 비례하니까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했습니다. '기필코 나무를 넣어뜨리겠다' 하면 결국 넘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기필코 정신만 있다면 세상에 안 될 일 없습니다. 이 정신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도했다 실패하는 것보다 시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실패

자와 더불어 씨름을 하다 환도뼈가 위굴되는 지경에 처한 야곱, 날이 밝아오자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기를 청했으나 야곱은 축복을 받기 전에는 보낼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습니다. 기필코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신 앞에 하나님의 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창32:22-32).

엘리아는 3년 6개월 동안 달렸던 하늘 문을 열기 위해 갈멜산에 불이 연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했고(왕상18:19-46), 엘리사는 기필코 엘리야의 갑옷의 영감을 받게 되며 엘리야를 쫓더니 그의 계승자가 되어 엘리야의 갑옷의 능력으로 죽은 물을 살리고(왕하2:19-22), 유대와 예루살렘에 동행하여 모압 왕과 싸울 때 물이 없어 고생하는 것을 보고 물을 내어 그 지경

수화통역 예배안내

금요일집회
매주 주일 10시 & 2시 예배

주축복 전도사 (서울)
010-3256-0288

김서분 전도사 (인천)
010-7160-5497

웃음꽃이 피는 가정

최근 많은 기업이 펀(Fun, 재미) 경영, 또는 유머(Humor) 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펀(또는 유머) 경영이란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재미있게 일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일도 재미있어야 한다', '고객을 재미있게 하여 행복하게 만들자' 등의 모토를 가지고, 기존의 형식주의를 탈피하여 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펀 경영은 직원들을 즐겁게 일하도록 함으로써 주인의식에 입각한 창의성과 높은 생산성을 유발시키고,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시켜 궁극적으로 회사를 크게 성장시키고 직원과 고객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펀 경영을 가정에도 도입하면, 재미있는 가정, 웃음이 넘치는 가정, 상호 존중하는 가정이 되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타면 다른 항공사와는 다르게 기장이 직접 객실에 나와 인사말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장입니다. 여기에 혹시 비행기 타는 것이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저도 지금 사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비행기를." 곧 이어 익살스러운 기내방송이 나옵니다. "기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지만, 꼭 파우고 싶은 승객을 위해서 비행기 바깥쪽 날개 뒷자리에 짝 연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곳에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도 상영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도착하면 다른 항공사의 "열으신 물건 없이 편하게 가시기 바랍니다."라는 말 대신 "내

리실 때는 제발 아이들과 배우자는 놓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러한 펀 경영의 추구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해마다 꼽히고, 최초 3대의 항공기로 시작하여 현재는 500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된 세계 3위의 승객 운송실적을 가진 항공사로 성장하였습니다.

펀 경영을 가정에 접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펀 경영의 주제를 생각해 보면, 회사 직원은 가정에서 부부에 해당되고 고객은 부모와 자녀에 해당한다고 간주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몇 가지 사항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 가정 전체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핵심 가치를 먼저 설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정직, 성실, 인내, 운운, 사람 등과 같은 핵심가치를 각 가정의 환경에 따라 설정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 핵심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가정을 경영합니다. 둘째, 핵심가치가 큰 틀에서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게 자유와 융통성을 최대한 부여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은 가족 상호 간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라고 생각하면서 상호 존중하고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족 구성원 각자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유가 없으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 무엇인가에 쫓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유는 곧 비움이자

내려놓음입니다. 서로 자기의 욕심과 욕구를 내려놓음으로써 가족이 화합하고 가정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의 달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가족 각자가 유머의 방을 하나씩 마련합니다. 유머의 방은 노트, 컴퓨터, 스마트폰, 두뇌 등 어느 것도 사용가능하며, 각자의 유머를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어 쓸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말합니다. 보관된 유머를 매일 한 개씩 꺼내어 가족에게 선물합니다. 시의 적절한 유머와 재치는 가족 간에 대화를 재미있게 하고 웃음이 넘치게 만듭니다. 다섯째, 가족들, 특히 자녀들에게 희망의 말, 축복의 말, 그리고 격려의 말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먹고 삽니다. 흑인 빈민가 출신의 열등생에서 세계 최초로 삼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하여 세계 최고의 소아과 의사로 성공한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의 벤 카슨은, "나의 어머니가 내가 늘 꼴지를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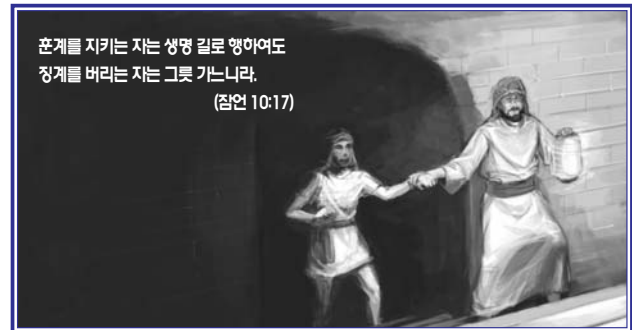
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 '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려주면서 내게 격려와 용기를 주었습니다."라고 그의 성공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합니다. 가정에 웃음꽃이 넘치면 복이 넘치게 들어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가정의 달 오월, 부모에게 공경을, 자녀에게 사랑을, 부부 간에 신뢰를 표시하는 마음의 선물을 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가족들이 서로 유머와 웃음거리를 매일 선물로 주고받는 것은 어떨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엡5:22)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엡5:25)

이관섭 장로

kwansup1029@hotmail.com



혼계를 지키는 자는 생령 길로 행하여도
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는 나라.
(잠언 10:17)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갖자

지난 8일 JC 아카데미에서는 총회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갖자'는 주제로 청년대학생들에게 열강을 펼치셨다.

"인생은 곧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실패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실패자가 되고, 성공자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성공의 길을 걷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면 예수와 같이 영·혼·육에 점도 흠도 주름도 없이 아름다워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게으름'이란 무엇인가? 누누이 말하지만 게으름은 무책임한 것이며, 할 수 있는 것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실패자는 변명과 핑계를 일삼곤 한다. 그러나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만에 하나 찾지 못했더라도 '그 길을 내가 만들리라'는 생각을 가져야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은 이사와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뿐더러,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높다고 말씀하셨다(사 55:8-11).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된 우리를 능치 못할 것 없는 존재로 만드셨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을 보라. 그들은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 남의 집 지붕을 뚫어서까지 예수를 만나려니 마침내 목적을 이루고야 말았다(막2:1-12). 한나 역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애통하며 기도한 결과,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었다(삼상1:1-20).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처럼(약2:26),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을 때 역사하고, 조직적인 정신력에 행함이 더해졌을 때 기적이 따라온다. 헬무트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옮겨다니 헬루 근원이 마르는 역사를 경험했다(막5:25-34). 비단 헬무트 여인뿐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성공한 이들은 모두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음을 기억하라. 물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경험이 되며, 이를 통해 내가 이전보다 성장, 발전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해서야 어찌 되겠는가? 하나님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보다는 남들보다 앞서 그

들을 이끌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이를 축복하신다. 그러니 여러분은 스스로를 돌아보아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시켜라.

값비싼 명품 옷과 신발을 걸치고 신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까지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 그를 명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 곧 '생각'을 계발하라. 그리고 잡석도 갈고 다듬어야 비로소 옥석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을 성심성의껏 갈고 닦아 최대치로 활용하길 바란다. 여러분이 인내하며 심는 것이 차근차근 성장, 발전하면 때가 되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이며, 나아가 단 열매를 맛보는 성공자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달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아가기를 날마다 힘써서 나와 내 가정, 직장, 나아가 온 세상을 예수 중심으로 선포하는 젊은이들이 되자.

이국진 기자

joyful_jina@hanmail.net



귀를 기울이세요

한 방송사에서 일본의 역사왜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역사적인 주제를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 무작위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대상은 대부분 10대 중고생, 20대 대학생, 30대 초반 직장인과 주부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야스쿠니 신사'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은 82명 중 4명에 불과했고, '위안부'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는 20명 정도만 정답을 맞췄을 뿐 나머지 사람들은 '모른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운봉 길 의사와 혼동하여 '도시락 폭탄을 던진 분'이라고 답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특히 야스쿠니 신사의 '신사(神社)'를 신사 속내 할 때의 그 신사(紳士) 아니냐는 청소년도 있었고, 야쿠르트 가 먹고 싶다는 황당한 답변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현실이 꼭 잘못된 교육 정책만 탓할 것은 아닙니다. '역사가 없는 나라는 힘이 없는 나라'라는 일본의 역사왜곡 항의 시위에 참석하신 위안부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라 없는 백성은 나라 있는 개만도 못하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역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대한민국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수많은 독립투사와 순교자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나라의 소중한 역사에 대해 바로 아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합니다.

신재식 전도사

blessedmb@naver.com

::성경에서 배운다::

반석 위의 가정

뉴스에는 연일 가정이 파괴되는 끔찍한 소식들이 뒤따르고 있다. 세 살 배기 아들을 내다버린 뒤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 실종신고를 하고, 평생 같이 살아온 아내를 살해해 유기하는가 하면, 점심상을 너무 일찍 차렸더니 할머니를 폭행한 손자의 이야기가 들린다.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시작으로 수많은 가정들이 소개되어 있다. 그중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던 노아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의 본(本)이라고 할 수 있다. 노아는 지금의 우리 세대처럼 죄악에 물든 시대를 살았다. 하지만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만 남은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방주의 제작을 명령하신다. 그리고 명령에 고스란히 순종한 노아는 자신의 구원과 함께 아내, 셋, 함, 야벳 3명의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의 구원까지 함께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아의 믿을 못지않게 가족들의 믿음과 결속력이 참으로 대단한 것을 알 수 있다. 노아는 워낙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충만했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셨기에 1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흔들림 없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겠지만, 집안의 가정이 가족 부양의 책임을 뒤로 한 채 오랜 기간 방주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평, 불만이 없었던 노아의 아내 역시 놀라운 믿음을 소유했다.

세 아들들도 마찬가지다. 결혼할 만큼 장성한 후에도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고, 며느리들 역시 남편과 더불어 하나가 된 것을 보면 평소 노아의 부부가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로 인해 하나님께 계속 경고를

받다가 결국 가문이 몰락한 가정이었다. 제사장에 드릴 고기를 빼앗는가 하면,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등 온갖 불순한 일들을 행하는 자녀들을 알고도 제대로 된 훈육을 하지 못했고, 결국 두 아들은 전쟁에서 한낱에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고, 충격을 받은 며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의 이가봇이라는 아기를 조산하며 대가 끊기게 된다.

지금 우리 집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가정의 기초는 어디 위에 세워져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어진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가정, 원망이나 책망이 아닌 신뢰와 사랑이 숨 쉬는 가정이야말로 완악한 시대에 노아의 방주와 같은 믿음의 안식처가 되어줄 것이다.

하인명

renming@daum.net

Good News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힘쓰고 발버둥 쳐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표토로 대제는 "나는 나라는 다스릴 수 있지만 내 마음은 다스리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결단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해 보았지만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죄의 짐은 점점 더 무

거워지고,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종교에서는 선행이나 구제, 설상에서 고행하거나 경전을 암송하고, 굿이나 제사 의식을 통해 마음의 위안은 얻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갈4:5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시키고, 둘째는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

자가에 못 박혀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자들의 죄를 다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이 '속량(贖良)'이라는 단어는 당시 노예를 살 때 몸값을 지불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님은 보혈의 피를 흘려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한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화영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Edu Section::

사람이 최대의 자산이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 몇 가지가 있다. 그중에는 눈에 보이는 자산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도 있다.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따지기는 쉽지 않다. 제각각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자산의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위에 두어야 할 것을 꼽으려면, 나는 단연코 '사람' 즉,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참된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일 것이다. 소중한 내 자녀의 참된 인성을 위해 알려줘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도덕과 가치관,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은 자녀의 일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내 자녀의 앞길에 탄탄대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넉넉한

을 길러주어야 한다. 예의바르고 넉넉한 배려심을 바탕으로 따뜻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면, 복잡한 이 세상을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애틀로, "세 다리 건너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다. 내가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아는 사람. 이렇게 세 번만 연결 하면, 우리 모두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는 뜻이다.

얼마 전 동창모임이 있었다. 전혀 얼굴도 몰랐던 후배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후배는 다름 아닌 전직 대통령의 사위였다.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 고하를 이야기 하지는 것이 아니다. 나와 후배, 후배와 장인어른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결국 우리 사회를 다 연결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처럼 한 명의 인연이 백 명, 천 명의 사람과 연결될 수 있고, 그 인연은 사회 구성원 전체로 연결된다. 그 수많

은 연결고리들이 서로 좋은 관계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평탄하고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러 사람의 각기 다른 개성이 모여 사회와 문화를 형성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각각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호연지기의 자세로 주위의 사람을 수용하며,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은 거저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인성과 인격, 그리고 예의가 하나 되어 사람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끊임없는 훈련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지갑 속의 수천만 원의 화폐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산은 다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위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순아

lovelyactor@naver.com

Q&A

Q: 교회에 출석한지 3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고난이 겹쳐서 물러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궁금합니다.

A: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는 마귀의 지배를 받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악한 영들과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가정의 불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여 피하지 마시고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어모두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결국 천국과 같은 가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성도의 반응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치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아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1:1~4). 이것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자중문과 같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는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다가서면 쉽게 열립니다.

고난으로 인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신 후 축복의 귀한 간증 나누시길 기도하겠습니다.

